

신아칼럼

국가 존망 달린 저출산 대책, 정치 아닌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박근중 작가·칼럼니스트

인구 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 존립과 흥망성쇠가 달려 있기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인구는 국가 경제의 가장 기본적 함수다. 생산력과 소비력을 나타내는 데 출산율 하락의 폭이 너무도 가파르다. 보육·보건·연금·교육·일반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사회정책을 좌우하는 가장 근원적인 팩터(Factor)이다. 게다가 인구감소는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惹起)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20년 3737만9000

명에서 2070년 1736만8000명으로 반 토막이 우려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의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총 380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3038개의 정책과제를 쏟아부었음에도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명대로 떨어졌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파른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 대한 국가의 명운을 건 근본 대책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8월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0.81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고작 0.81명 남짓이라는 의미로, 이미 압도적인 세계 최저 수준

(2020년 0.84명)에서 수위를 더 낮춰 급기야 0.81명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불과 20년 전인 2001년 55만9934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1년 전 27만2337명보다 1만1800명(-4.3%)이 감소한 규모로 역대 가장 적은 출생아 수다. 인구 문제는 이제 감소 시대를 넘어 인구지진(Age quake)의 인구소멸 시대를 치달리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치권은 말로만 위기라 할 뿐 실질적·효과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초등학교 폐교라는 말은 이미 너무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고 진부하고 비루한 용어로 퇴색되어 버린 지 오래다. 올해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예비소집이 시작됐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그런데 일부 지방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0명이라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백년대계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소홀히 방치(放棄)하거나, 흐지부지 방치(放置)하여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성장엔진 국가소멸이란 최악의 국가 존망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책임장관제'가 형해화(形骸化)되어서도 안 된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달아 뒤집혔고, 화물연대 파업 협상에 나선 국토교통부 차관은 "대통령실에 보고할 뿐 아무 교섭권이 없다."라고 대놓고 실도한 바도 있으며, 저 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위원장이 검토해보자는 정책 아이디어까지 봉쇄되거나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설익은 정책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 조율이 사라진 국가정책 결정은 국민 불안과 정책 혼선만 높일 뿐이다. 당연히 국가 존망이 달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가 아닌 경제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 무분별한 만기진단(萬機靚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도 무모한 당파적(黨派)도 국가발전과 국민통일에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자수첩

봄비 같은 겨울비가 내렸다

새해 들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겨울비가 봄비처럼 내리고 있다. 1월 초순이면 겨울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초봄을 연상케 하는 날씨는 가히 기상이변이라 할 수 있다. 해마다 짧아지는 봄가을에 이어 겨울마저 짧아지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 눈도 내리고 한파도 오고 가야 한다. 그러나 환경 파괴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급기야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계절이 계절답지 못한 채 기상이변을 가지고 오면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겨울을 만끽해야 할 때 갑자기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고 작은 생명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들이 생태 시계의 오류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를 생각해 본다. 부디 그런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인류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 및 온갖 쓰레기의 배출과 플라스틱 같은 유해 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이고, 그 결과는 언어가 역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와 사람들은 여전히 마주한 위험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리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뉴스 매체들은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봄 같은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는 큰 비와 홍수 등으로 산이 무너지고 마물이 잠기는 일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마음으로 마을과 도시와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나가고, 버리는 음식물을 최소화시켜 간다면 첫째는 물이 살고, 공기가 맑아지고,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생활방식, 공산품의 생산 방식 등을 이어간다면 지구는 회복 불가능의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피지 않고, 피지 말아야 할 시기에 핀다든지, 겨울잠을 충분히 자고 깨어나야 할 생명들이 시간을 거슬러 깨어난다면 갑자기 닥친 바람 앞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또 잃은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이상명 스타트미디어부

신아일보 Shinailbo.co.kr 신아일보미디어(주) 발행인·편집인·대표이사 李炯烈 편집국장 朴泰建 인쇄인 鄭熙澤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68 대표전화 : (02)2637-1226 FAX 2637-1132 등록일: 2003년 3월 29일 발행일: 2003년 6월 8일 등록번호 서울 가 9914 (단기) 편집국 02-2637-1131 편집부 02-3667-8114 정치부 02-2637-8114 총무국 02-2637-1226 경제부 02-2637-0010 사회부 02-2637-1131 광고국 02-3667-9114 산업부 02-2637-8114 건설부동산부 02-2637-81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독자투고



원유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재벌집 막내아들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얼마전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작년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지금까지 재벌가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많았지만, 이 드라마가 특히 더 인기를 끌었던 요인은 현실감 있는 생생한 경제사에 대한 묘사였다고 생각한다. 대선 자금을 어느 후보에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진양철 회장에게 기막힌 답을 제시하는 진도준,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순양가의 사위 최창

제가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순양가. 이러한 극중 상황을 보며 대중들은 한편으로는 씩씩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정경유착과 돈선거는 해방이후 우리 선거사에서 나타났던 고질적인 악습이다. 이러한 악습은 돈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공직선거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 특정 선거인으로 구성된 조합장선거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특성상 마을단위, 사업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선거인들이 대부분 혈연·학연·지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선거관련 금품 수수를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사업의 연장으로 인식하

는 등 범죄의식이 부족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당연히 여기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서로가 쉬쉬하며 이에 대한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장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 이후로 다가오는 3월8일 벌써 세 번째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도 특별 단속을 통해 돈선거 척결에 총력을 다하여 대응할 것이지만

금, 조합원 및 관계자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극 중 진양철의 사위 최창제가 "현대 사회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도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선자금 수사에 여와 야는 따로 없습니다. 성역 또한 없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공정과 정의만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연설로 대중들의 인기를 끈 것처럼,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돈선거가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한 정직한 후보가 당선되어 조합장선거가 돈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정직한 선거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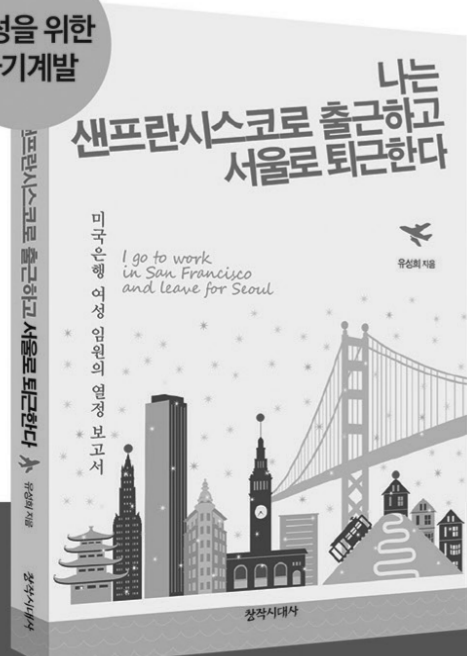
당신을 위한 희망 메시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나 잊고 사는 작은 지식과 지혜들

창작시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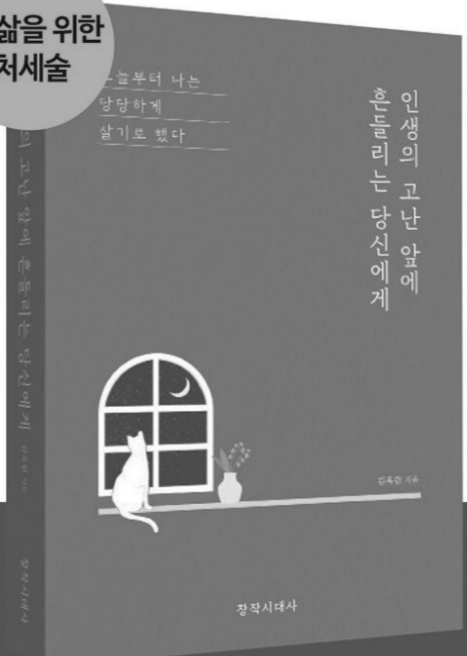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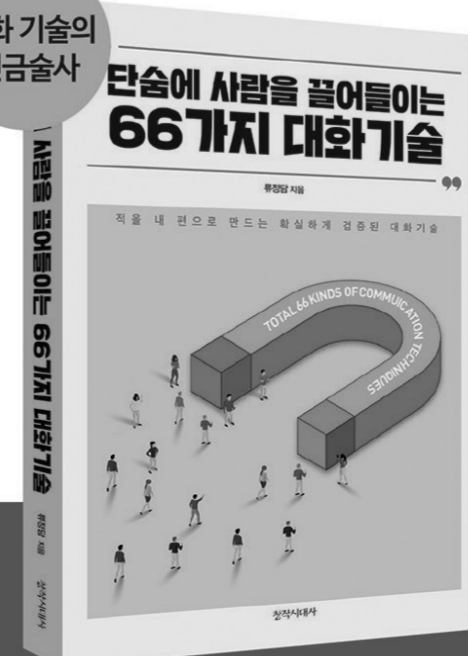
미국은행 여성 임원의 열정 보고서 유성희 지음 | 332쪽 | 값 15,000원

내 삶을 위한 처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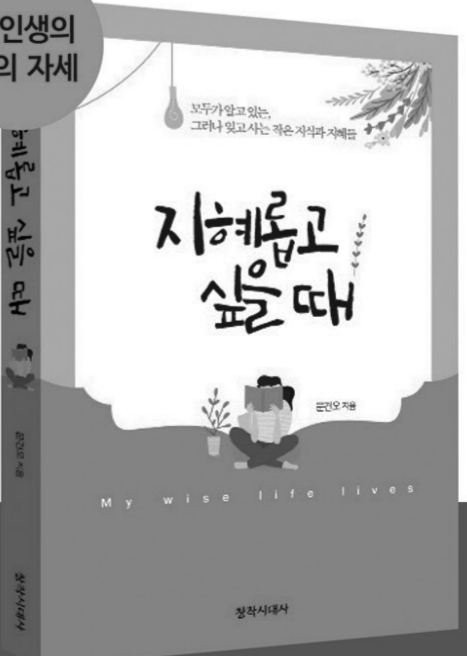
당당한 나로 살기 위한 지혜로운 생각 김옥림 지음 | 352쪽 | 값 14,500원

대화 기술의 연습술사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검증된 대화기술 류정담 지음 | 260쪽 | 값 14,000원

내 인생의 삶의 자세



삶 속에 얻어지는 지혜의 결정체들 문건오 지음 | 256쪽 | 값 14,000원